

광주은행 지역상생 발전 노력 또 인정 받았다

지역재투자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발빠른 금융 지원 추석 중기 특별자금 6000억 편성...향토은행 역할 특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발 빠른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왔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올해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그동안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펼쳐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부문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0년 8월부터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금융 지원 전략 세부항목에 대해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다.

평가결과는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향후 경영실태평가(금감원) 및 지자체·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금융 지원을 실시해왔다. 또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적극 앞장섰던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자금 3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의 자금을 편성해 재빨리 지급 지원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 취약자주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금융 지원방안 중 하나로, 새희망을 세대출에 대한 특별감면금리 1%포인트를 오는 연말까지 인하하기도 했다.

실제 올해 초 취임한 고병일 은행장은 취임식 후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임직원들과 지역재투자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첫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파악,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지속적인 금융지원도 펼치고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4억8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는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늘 '통 큰'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대표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을 위해 260억원을 출연하며 3대 주주도 참여, 눈앞의 이익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의 노력은 금융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대한

적십자사 5억 클럽에 광주·전남 1호 가입에 이어, 지난해에는 광주·전남 최초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시중은행 정포가 입차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1층보다 높은 층으로 이전하고 점포를 줄이는 것과 달리 지역 내 광주은행 점포 중 91곳(83%)을 1층에 마련했다. 임대료 부담에도 지역의 편의와 밀착경영을 위해 점포 위치를 1층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비대면 금융에 취약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전남에 대면 점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 선정 2021-2022년 상반기 연속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 1위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소형은행 중 1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고객 만족도 평가) 지방은행 2년 연속 1위 등 굵직한 경영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대표은행의 위상을 굳혀가는 모습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지역과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든든한 지역경제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티앤씨-블랙야크, 폐페트병 자원 순환 협약

효성티앤씨는 지난 5일 루비와이엔블랙야크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무색 폐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섬유 개발과 생산을 맡고 블랙야크는 이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사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리젠위드블랙야크'(regen with blackyak) 섬유는 블랙야크와 자원순환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지자체와 기업이 분리배출한 페트병을 수거해 세척 후 잘게 쪼개 전달하고, 효성티앤씨가 이를 다시 녹여 섬유로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리젠위드블랙야크는 블랙야크의 가볍고 편안한 특성을 가진 티셔츠 및 팬츠 제품에 적용된다. 리젠위드블랙야크는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국산 원료로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국내 리사이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효성티앤씨는 리젠위드블랙야크에 세균저항 기능을 부여하여 세균저항기능사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가 생산하는 세균저항기능성 섬유는 '안심주머니' 원단 용도로 사용되어 세균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

블랙야크 의류에 달리는 모든 주머니 원단은 세균저항기능사가 적용된 원단을 사용하고 안심주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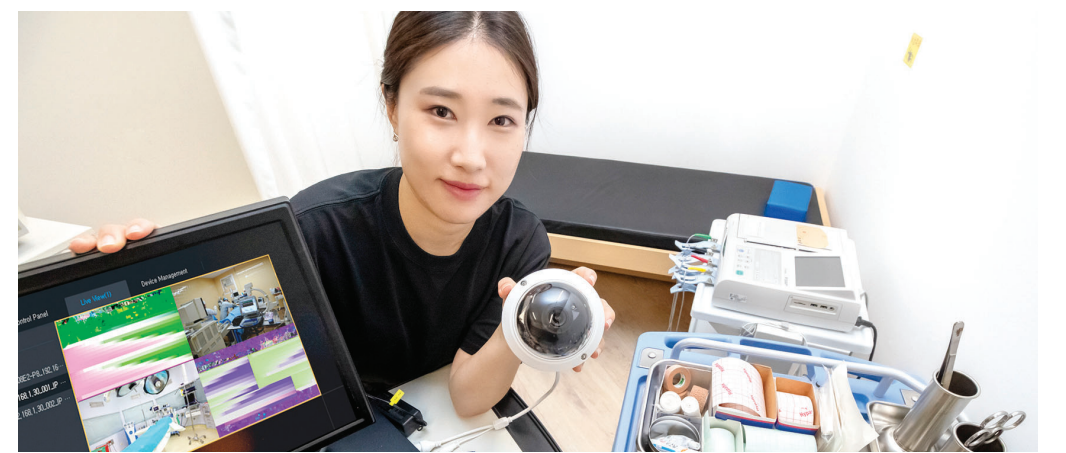
김정희(왼쪽) 블랙야크 상무와 정준재 효성티앤씨 상무가 무색 폐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효성티앤씨 제공>

니라는 태그가 달려 출시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리젠 등 리사이클 섬유를 시작으로 바이오 섬유 및 생분해 섬유까지 친환경 섬유와 패션 분야로 비즈니스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블랙야크는 산악인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쌓은 노하우를 아우터웨어 환경에서 자연과 사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의류와 용품에 적용하는 등 신사업 영

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는 "이번 리젠위드블랙야크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기능성 측면에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 시장에서도 친환경 섬유의 비중을 크게 늘려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T 직원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대비를 위한 KT 수술실 CCTV 솔루션 '기가아이즈 메디뷰'를 소개하고 있다. <KT 제공>

광주·전남 의료기관 수술실 CCTV KT '기가아이즈 메디뷰'가 딱이죠

KT 전남전북광역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솔루션 '기가아이즈 메디뷰'(GIGAeyes mediview)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KT는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법적 설치 기준에 최적화된 솔루션 '기가아이즈 메디뷰'를 지난 5월 출시한 바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의료법 제38조의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면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KT의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실시간 영상 보호를 위한 영상 암호화 및 영상저장장치 ▲반출관리서버 연동을 통한 단일 시스템 등을 적용해 의료진과 환자가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실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CCTV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 상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CCTV 규격에

도 조건이 까다롭다. 예를 들어 수술실 영상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경 방지,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 기록 30일 간 보관, 개인정보 비익명화 조치 등이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IP카메라, 영상저장장치, 서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동원된 통합 CCTV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해당 조건에 맞춰 출시된 수술실 CCTV 전용 솔루션이라는 게 KT 설명이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의료법 설치 규격에 맞춘 IP카메라, 녹화 버튼, 전광판,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반출 서버, 서버랙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다른 장치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각 장치가 하나의 폐쇄 네트워크에 연결돼 운영 편의성이 높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현재까지 주요 상급병원을 포함 전국 100여개 병원에 계약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지역 내 병원 18여곳에 설치됐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한 달여만에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금융사들이 잇따라 이상 상품의 취급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불과 약 한 달 만에 판매를 중단하는 셈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2조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달 1일과 4일에는 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삼성화재의 해당 대출이 끝난 보험사 가운데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어졌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 등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놨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정 기준 변경 등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aT 스튜디오 '테마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현장'. <aT 제공>

aT, 라이브커머스 테마 기획전 개최

19일까지 저탄소 식생활·식품명인 추석 선물전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협력해 오는 19일까지 'aT 스튜디오' 서울 본점에서 저탄소 식생활 기획전, 식품명인 추석 선물전 등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테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OK캐쉬백 라이브방송(오라방)'에서 동시 송출 예정이다. 오는 13일 네이버와 함께하는 '블루밍 데이즈'(캠벨 포도·블랙사파이어 포도) ▲18일 '식품명인 추석 선물전'(한과·식혜·수정과) ▲19일 '추석 햅쌀전'(햅쌀·잡곡선물세트)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식품명인 추석 선물전에는 최봉삼 갈골산

자 명인(23호)과 문완기 식혜 명인(77호)이 직접 출연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공사는 'aT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품 사진과 동영상 촬영, 홍보페이지 제작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제품 라이브 커머스, 7월에는 농업 마스터가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진행해 농가와 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펼치고 있다.

'aT 스튜디오'는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서울 aT 센터 본점을 비롯해 광주점(광주시 서구 내방로 161번길 13, 2층) 등 총 5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인자위-환경인자위, 환경산업 인력양성 협약

광주상공회의소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6일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광주지역 환경산업 분야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환경산업 산업인력 현황분석과 광주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 실태 조사 간 정보공유·협력, 환경산업 직무능력 향상 모델 개발·제안, 환경산업기술, 수준별 훈련과정 표준화 방안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인자위는 2013년 출범한 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기업훈련지원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을 수행 중이다.

매년 지역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을 제고하는 등 광주지역 고용 관련 컨트

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별 협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모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산업환경, 환경보전, 자연환경, 환경서비스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3.34(-18.84)
↓ 코스닥	917.95(-3.53)
금리(국고채 3년)	3.765(-)
↓ 환율(USD)	1330.50(-0.10)